

科學國家建設위한 與件造成에 注力

國民生活科學化 主導위한 體制補強

科總 對話의 廣場 等 마련코 振興策 개발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진흥창달을 위한 과학 기술진흥시책방향을 연구 검토하는 한편 국내 외적인 학술활동과 산학학회학술활동육성 지원 및 국민생활 과학화운동등 과학기술풍토조성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온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회장 閔寬植)의 올 한해는 80년대 고도산업 복지국가 건설에 원동력이 될 과학기술 발전과 이를 爲한 風土造成을 중점사업으로 적극 추진 해 나갈 계획이다.

1966년에 설립되어 工学, 理學, 保健, 農水産, 綜合분야등 150여개 회원 단체를 抱擁하고 있는 科總은 그동안 과학기술단체의 총본산으로 성장하여 학회 연구기관을 유기적으로 연합하여 우리나라 과학기술진흥창달에 기여해 왔을 뿐만 아니라 국민생활과학화운동을 주도적으로 전개하여 科學精神의 구현과 「科學立國」「技術自立」에의 터전을 다져왔다.

특히 올해는 80년대의 科學國家建設이라는 국가적 명제를 달성하기 위한 여건조성에 주력하는 한편, 그동안 추진해 오던 목적사업들을 더욱 活性化시키고 科學技術人의 對話의 擴場과 國際科學技術情報交換事業등 새로운 사업을 개발, 과학기술기반완성에 총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科總이 80년대 科學國家建設을 겨냥하여 마련한 Masterplan을 살펴보기로 한다.

◎科學技術振興施策 촉진사업 전개

과총은 80년대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施策 방향을 조사 연구하고 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책연구위원회를 비롯, 자원개발연구위, 중화학개발위, 식량증산개발위, 과학기술용어제정심의회, 방재과학연구위, 국민주택문제 연구위등 7개 상설위원회의 운영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작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 防災科學研究委員會(위원장 金始源)는 작년에 이어 지진, 수해, 한발등 각종 재해대책의 방재과학연구 기본계획서를 작성하고 실질적으로 수행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선별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해결책을 모색중에 있는 국민주택문제연

구위원회(위원장 愼武賊)는 주택에 관계되는 모든 자료를 수집, 색인목록을 작성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게 되며 작년에 이미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에 착수한 바 있는 과학기술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金基衡)는 금년에는 효율성있는 진흥시책을 수립하고 그 대책을 관계요로에 건의할 방침이다. 이 위원회는 이미 신헌법제정시 관계법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對政府建議書를 작성, 관계기관에 건의하는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인의 폭넓은 대화를 통하여 80년대 과학기술진흥시책 방향을 비롯한 공동관심사를 종합하여 전문분야별로 대책을 마련키 위한 “과학기술인 대화의 광장”을 매분기마다 개최하여 각계의 의견을 종합 조정하여 발전책을 촉진시킬 방침이다. 이 모임에는 과학기술계를 비롯, 학계, 경제계, 언론계등 각계 인사를 폭넓게 참여시켜 좌담을 겸한 대화의 광장으로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国民生活科学化 적극 추진

과총은 또 새마을운동의 제 2 단계 점화라는 차원에서 범국민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국민생활과학화운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의욕적인 사업들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국민생활과학화운동의 일환으로 연구소와 상아탑에서만 다루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과학기술을 우리생활주변으로 끌어내어 과학정신을 계발, 함양하고 생활의 과학화를 스스로 이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서울시민 과학의 밤’ 행사를 작년에 이어 두번째로 개최. 국민개개인이 과학화운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키로 했다.

그리고 모범적인 과학화사례를 발굴 보급하여 과학화운동을 보다 확산 보급시키기 위해 작년에 처음으로 시도한 ‘과학화모범사례발표회’를 통해 과학화운동의 파급효과를 측정하는 동시에 보다 효과적인 추진방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 새마을운동의 현장에 과학기술 고급 두뇌

를 전문분야별로 참여시키므로써 지역사회개발과 농어촌 근대화를 위한 영농의 과학화를 이룩하기 위해 과총이 의욕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새마을기술봉사단 활동사업은 금년에도 신문·방송등 매스컴을 통한 기술지도(360회)와 현지 기술지도(1,200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금년에 처음으로 과학화교육사업을 시·군에서 실시하는 새마을지도자 및 독농가 교육시 분야별 전문위원을 강사로 동원하여 생활과학교육과 농·축·수산기술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과학마을조성연구사업을 적극 추진, 영구적인 과학마을 육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기술지도사례발표회를 8월경에 대전에서 개최하고, 우수사례는 발굴 보급할 계획이며, 특수경제작물 재배기술을 내용으로 한 기술교본 5,200부(국판 600면)를 발간 보급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과총에 이미 설치돼 있는 국민생활과학화운동 추진위원회에서는 ‘과학의 날’ 기념식을 비롯한 과학의 달 종합행사, 과학주간행사(전국 9개도에서 실시)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마련, 연중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학회학술활동지원 대폭 확대

과총의 중점사업의 하나인 학회학술조성사업은 올해는 총 1억 1천만원의 지원금(국고 7천만, 산학협동재단 4천만원)으로 산하 120개 순수학회에 고루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기초과학과 순수학회의 육성을 위해 학회지발간, 학술발표회, 국제분담금 및 공동조사연구 활동을 지원케 되는데 금년에는 특히 보조금 심사위원회를 통해 학회지 발간과 공동조사 연구사업에 역점을 두어 운영할 방침이다.

그리고 회원단체의 합리적인 운영과 연구기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두번째로 회원단체 및 연구기관 관리운영연수회를 개최키로 하고 회원단체의 운영향상과 권익을 위한 제도, 운영, 경영관리, 학술활동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연구기관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년 2회에 걸쳐 개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과학기술자간의 유대강화와 단합의

계기를 마련키 위한 과학기술자단체대회를 열어 10만 과학기술인들의 總意를 다질 예정이며, 산하 153개 회원단체의 사무국장들을 초청하여 제 2회 과학기술단체사무국장회의를 개최, 문제점과 상호관심사를 찾아 그 개선책을 모색키로 했다.

◎國際情報交流事業 강화

과총은 또 80년대 國際化時代에 대비한 國際協力事業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금년부터는 국제학술기구와의 본격적인 과학기술정보교환사업을 통해 최신정보와 문헌을 입수 활용할 계획이다. 국제기구와 긴밀한 업무연락으로 협력기반을 조성하고 「미국과학진흥협회(AAA/S)」, 「태평양과학협회(PAS)」, 「세계기술단체연합회(WFEO)」, 「동남아·태평양지역 공학단체연합회(FEISEAP) 등 국제회의에도 참가할 예정이다.

또한 해를 거듭할수록 국내 최대의 mamos 학술회전으로 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국내의 한국과학기술자 종합학술대회를 금년에는 7월에在美科協과 공동으로 서울에서 개최하여 국내외 재외한국과학기술자의 학술연구발표와 기술정보교류를 꾀하게 된다. 이 대회는 국내 및 재외한국과학기술자간의 학술교류는 물론, 국내에서 필요로 하는 고급인력유치에 창구역할을 해 왔던 것으로 금년에는 보다 많은 우수한 과학기술자들의 참가가 예상된다.

또한 국내의 과학기술자간의 유대강화와 학술 및 기술정보교류를 통해 과학기술진흥에 기여함과 동시에 취업, 취학, 학술대회등의 업무를 주선하기 위해 이미 과총에 설치한 바 있는 「국내의 한국과학기술자 협력위원회」의 운영을 강화하여 재외과학기술자들의 국내알선 및 협조창구를 넓혀나갈 방침이다.

◎用語辞典·30年史 등 編纂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의 발전과정을 일목요연

하게 체계화하고 사관을 정립하기 위한 『科学技術30年史』는 이미 과총 산하학회 및 주요 기관으로부터 기초자료수집을 완료하고 通史 및 綜合年表를 작성, 금년에는 종합검토를 거쳐 인쇄, 발간할 계획이다.

또한 폭주하는 선진 과학기술정보 및 지식을 소화흡수하고 과학기술교육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과학기술용어의 사전편찬사업을 계속할 예정이다. 우리 실정에 맞게 토착화하고 대중화함으로써 과학기술교육을 효율화하고 학술연구활동의 심화와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간 추진되고 있는 “과학기술용어사전” 편찬사업은 3차년도 사업으로서 이미 간행된 과학기술용어제 1집에서 천문학, 기상학 용어 중 기본용어 6,000용어를 발췌하여 새 용어를 수집 삼입하고 해설 및 도해를 작성하게 된다.

8개년계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 용어사전발간사업은 78년에는 物理, 化学, 数学 등 기초과학분야 7,000용어의 해설에 이어 79년에는 動物, 植物, 微生物 등 3개분야 7,000 용어에 대한 해설작업을 완료했으며 81년에는 해양지질과 기타분야 10,000용어에 대한 해설작업을 할 계획이다.

그리고 국내유일의 과학기술전문종합지로서 국내의 과학기술에 관한 최신정보와 생활과학에 관한 내용을 게재하여 과학기술계의 연구활동상황과 산업기술의 발전동향을 보도함으로써 국민생활과학화 및 과학기술진흥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월간 『과학과 기술』지는 금년에도 매월 발간하여 과학기술계를 비롯한 경제계 및 학계등에 무료로 배포할 방침이다.

앞으로 『과학과 기술』지는 기관지로서의 차원에서 한단계 뛰어넘어 80년대를 지향하는 과학기술계의 매번지로서 매월 시사성있는 주제를 특집으로 마련, 알찬 기획과 참신한 편집으로 보다 새로운 잡지로서의 면모를 갖춰 나갈 방침이다.

